

문화 역량의 뿌리내릴 '책으로 여는 세상'

국민독서캠페인 '책으로 여는 세상' 국립중앙도서관 광장에서 열려

지난달 30일 문화관광부와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도서관·국립영상제작소·한국도서관협회·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한 국민독서캠페인 '책으로 여는 세상'이 국립중앙도서관 광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. 이날 행사는 책 속에서 국난극복의 지혜를 얻고 재도약을 위한 희망을 찾으려는 취지하에 마련되었다. 신낙균 문화관광부장은 "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지식산업이 문화역량의 뿌리"라고 전제하고 "국가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공허감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책 속의 지혜와 용기가 절실할 때"라고 강조했다.

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 1부 행사에는 알뜰도서관터·알뜰도서관교환전·주제별도서 특가판매·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·유명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가 이어졌다. 알뜰도서관터에는 문예출판사·민음사·서울대출판부·지식산업사 등 30개 출판사가 참여해 신간도서를 20% 특별할인판매했다. 출판문화협회와 도서관협회가 공동주관한 알뜰도서관교환전에는 독자가 읽은 책을 출판문화협회에서 엄선해 기증한 1400여권의 도서와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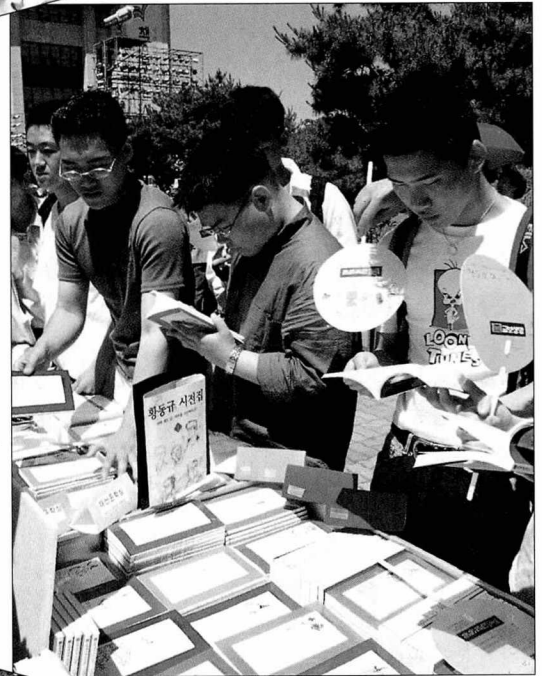
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진 '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한마당축제'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은은한 연주 속에 김춘수·홍윤숙·김종길 등 시인 20명이 자작시를 낭송해 독자들의 시심을 불러일으켰다. 한마당 축제와 더불어 시낭송회 참여시인의 '대표작 모음 시화전'이 열리기도 했다. '유명저자와의 만남'에는 김주영·조정래·임철우 등 문인들이 참가해 독자와 만났다. 그외에 즉석 독서캠페인 포어공모전, 테마별 기획도서전 등이 분수대 광장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열렸다.

국립중앙도서관 대전시실에서 열린 '세상을 연 책들과 명사 애장도서 특별전'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,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, 니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등 각계인사들이 참가해 개막테이프를 끊고 전시장을 둘러보았다. 이 전시회에는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·신영길 한국장서가협회장 등 저명인사 36인의 애장도서와 동서양 고전 100권, 《동인지문》·《석보상절》 등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문화재급 고전적(古典籍) 및 희귀도서 등을 특별전시했다. 이 전시회는 6월 5일까지 계속되었다.

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2부 'KBS 특별기획공연'은 KBS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춰 국립무용단의 '책으로 여는 세상' 공연으로 시작되었다. '한국을 빛낸 100권의 책들' 뮤직비디오와 행사스케치에 이어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인터뷰, 모범 청소년 및 독서공연대회 입상학생 등이 출연했다. 또한 이승철·변진섭·Ref 등 인기가수의 특별출연과 주요인사들의 '나를 감동시킨 한권의 책' 소개, KBS어린이 합창단의 동시메들리에 이어 KBS관현악단·사물놀이 한울림·KBS예술단이 어우러진 '열정'으로 막을 내렸다. — 박천홍 기자



· '유명저자와의 만남'에 참가한 문인들이 일일이 자신의 저서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. 이 행사에는 신현림·정채봉·조정래·김주영·윤후명씨 등이 참가했다.



· 알뜰도서관터에 나온 시집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. '책으로 여는 세상'이 아름다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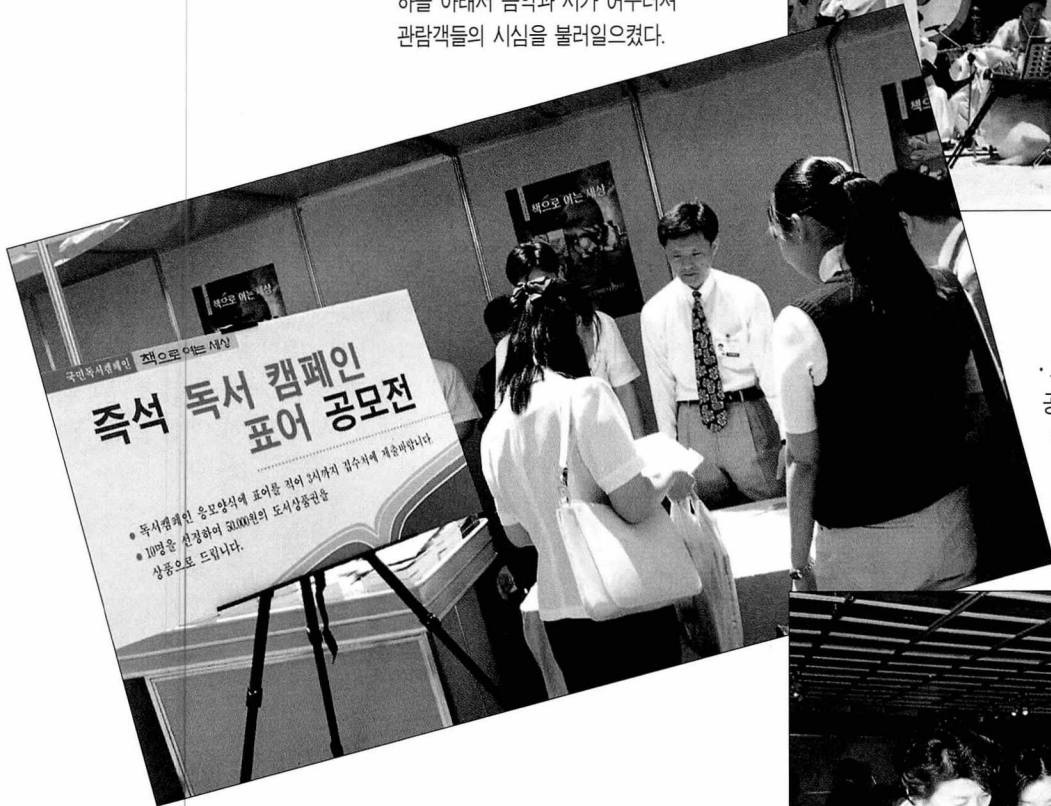


· 캠페인에 참가한 독자들이 알뜰도서관터에 나온 책들을 살펴보고 있다. 각 출판사들에서 엄선한 좋은 책들을 20%에 할인판매했다.



· '시낭송 참여시인 시화전'에 걸린 시를 학생들이 열심히 읽고 있다. 시인들의 시세계가 아름다운 그림과 어우러졌다.

· '시와 음악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'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에 맞춰 김춘수 시인의 <꽃을 위한 서시>와 <나의 하나님> 등을 낭송하고 있다. 맑은 하늘 아래서 음악과 시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시심을 불러일으켰다.



· 교보문고가 주최한 '즉석 독서캠페인 포어 공모전'에 시민들이 응모하고 있다. 10명을 선정해 상품으로 5만원의 도서상품권을 수여했다.

· 국립중앙도서관 대전시실에 열린 '세상을 연 책들과 명사 애장도서 특별전'에서 관람객들이 명사들의 애장도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. 명사들이 책 내용소개와 함께 소장 내력, 독후감 등을 꼼꼼하게 놓았다.

